

학회소식과 동정

학회소식

•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 교수)는 지난 6월 24일 대우재단빌딩 7층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 관련 국회법개정은 위헌인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정토론에는 김유환 교수, 김용섭 교수, 김재광 교수, 장영수 교수, 한상희 교수가 참여하였다.

• 한국헌법학회(회장 박중보 교수)

한국헌법학회(회장 박중보 교수)는 지난 2015년 7월 16일(목) 14:30~18:30 국회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과 헌법제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해방과 헌정의 연속성 : 이현환(이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에는 김승대(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황승흠(국민대학교 법학과)교수가 참여하였다.

- 해방과 헌법제정 -헌법문서를 중심으로- : 이경주(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에는 이영록(조선대학교 법학과)교수와 박철호(국회법제실 사법법제과장)가 참여하였다.

- 헌법제정과 국가공동체의 통합 :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토론에는 이상명(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병규(동의과학대 법학과)교수가 참여하였다.

• 유럽헌법학회(회장 김상겸 교수)

유럽헌법학회(회장 김상겸 교수)는 7월 20일(월) 14:00~18:00 동국대학교 법학관1층 모의법정에서 입법부의 행정입법통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행정입법통제: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에는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였다.
- 일본의 행정입법통제: 조원제 (일본 駒澤大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에는 최혜선 (건국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가 참여하였다.
- 독일의 행정입법통제: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에는 김봉철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참여하였다.
- 프랑스의 행정입법통제: 오승규 (중원대 법학과 교수)
토론에는 정관선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가 참여하였다.

•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경운 교수)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경운 교수)는 지난 7월 3일(금) 13:30~18:0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준현(단국대 교수)
토론에는 권현영(광운대 교수),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 의료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최계영(서울대 교수)
토론에는 장보은(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욱(법무법인 세승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에는 김태호(서울대 강사), 오강탁(전자정부지원본부 본부장)가 참여하였다.

•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정현미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정현미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13일(토요일) 14:00~18: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303호, 304호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형사법과 윤리-기업과 형사법, 성과 형사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기업과 형사법-

- 기업내부자의 횡령·배임죄와 관련한 최근의 동향과 법적쟁점: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토론에는 이천현 박사(형사정책연구원), 김범식 교수(서남대학교), 김재운 교수(전남대학교)가 참여하였다.

• 기업범죄의 새로운 지평 : 횡령/배임 관련 최근 수사 및 재판사례를 중심으로: 조성훈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토론에는 김인희 교수(인하대학교), 안경옥 교수(경희대학교), 최병각 교수(동아대학교)가 참여하였다.

-성과 형사법-

•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 논란과 쟁점: 이덕인 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

토론에는 김권영 과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과), 권창국 교수(전주대학교),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가 참여하였다.

• 바람직한 성행법의 정립을 위한 제언: 이경재 교수(충북대학교)

토론에는 정희철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문성도 교수(경찰대학교), 이재희 소장(부산성폭력상담소)가 참여하였다.

등 정

• 이동훈 교수(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공법학)

이동훈 세명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3년부터 세명대 교수로 재직해왔다.